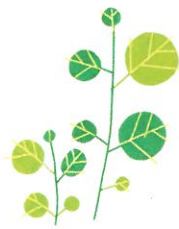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시민공론(여론) 조사

- 조사대상 : 만19세 ~ 만65세의 시민
- 응답자 표본수 : 900명
- 대상지역 : 익산시 전체 동지역, 오산면/춘포면 거주자  
(익산지역 유치원 취학 인가 권역(제1권역)에 근거)
- 조사방식 :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15. 11. 20.(금)~ 11. 21.(토), 2일간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회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공보물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사립측에서 제출을 거부하여 본 공보물에 게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공 토 론 위 원 회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시민공론(여론)조사 협조 요청

지난 5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단설유치원 문제에 있어 '14년 7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노력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 하다며 의결을 유보하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전라북도 의회에서 요구한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공개적인 모집과정을 통해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도 단설유치원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일 뿐입니다.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합의안을 사립측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를 넘어 단설유치원에 대한 시민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한 3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주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는 유래가 없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노력과 시민의견 수렴과정으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기에 단설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익산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익산시의 유아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갈등조정 노력, 시민의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산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시민의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 11. 10.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전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이원식 부의장(금강대 사회복지학교수),  
김덕중 위원(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호원 위원(원광대 보건보완의학교수),  
이상민 위원(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희성 위원(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행식 위원(전 원광대 법과대학장)

# 익산교육지원청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 1. 추진배경 및 경과

- 2010년 시민 민원으로 설립 추진 시작/ 5년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갈등하고 있음
- 2014년 어린이집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립 측의 반대로 무산
- 추진 근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택지개발로 초등학교 신설시, 정원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포함 시켜야 함
  - ☞ 정원 975명 배산초 개교('17년 3월)와 관련하여 총245명 규모의 유치원 설립 대상임
- 2015. 9월부터 시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운영

### 2. 사립측과 합의를 위한 노력

- 1) 축소된 설립계획안 수립 제안
  - 법정 최소정원 245명에서 195명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설립계획 수립
- 2) 4자 대표자 협의회 개최 (공공토론위원회 주관)
  - 4자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공공토론위원회, 교육청
- 3) 교육지원청의 수정안 제안 ('15년 10월 12일, 4자 대표자 회의)
  - ㉠ 영만초 병설유치원 2학급 흡수 통합(정원에서 45명이 다시 축소되는 결과)
  - ㉡ 사회적배려대상자 최대 50%까지 선발 확대(교육의 공공성 강화)
  - ㉢ 개원시기를 2년 연기 : 당초 '17년 3월 개원에서 '19년 3월로 2년 연기

### 3.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

- ☞ 유아 공교육을 원하는 익산시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원아 수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측과의 합의를 돕기 위한 익산교육지원청의 조정안입니다.

설립규모 (총12학급)	일반학급 9학급(183명) + 특수학급 3학급(12명) = 합계(12학급, 195명) (기존의 공립(병설)유치원 2학급(45명)을 신설유치원에 통합)
위 치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950-6 (옛 영만초 부지)
설립비용	약 80억원 정도 (교육부에서 설립비(65억원)와 매년 운영비 별도 지원)



## <찬성측>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우리의 책임입니다.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

### Q1 (학부모도 아닌데) 익산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가요?

- A. 익산에 새로운 공립 유아학교가 설립되는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익산시의원(25명)들도 설립찬성 11명, 반대 2명, 입장표명 유보자 12명. 지역내 <핫 이슈!>로 부상 (출처 : '15.11.4. 익산투데이 보도)

### Q2 사립측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을 세금낭비라고 주장하던데요?

- A. 공립유치원은 유아 학교입니다. 공교육은 초중등학교처럼 국민이 납부한 세금(주로 국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입니다. 학부모와 유아들이 받아 마땅한 혜택이며, 자신의 권리와 기호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Q3 타 지역 현황은 어떤가요?

- A. 전북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전주에 4개(17년 개교예정 포함), 군산에 3개, 익산은 1개, 인군 완주에 2개가 있습니다.

### Q4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면, 왜 바로 추진하지 않고 있나요?

- A. 2011년부터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반대로 인해 2014년 도의회 심의에서 유보 결정되었죠. 시민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 Q5 사립측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특정 소수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던데요?

- A. 그럼, 앞으로도 사립시설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야 할까요? 현재처럼 공립유치원에는 대상유아의 14%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한번 설립되면 100년 이상은 갑니다.

### Q6 설립(안)을 보면 특수학급이 포함되어 있던데, 익산시내 특수학급이 없나요?

- A. 사립유치원에는 1학급도 없죠. 공립에만 3학급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3학급이 추가 설치되면, 앞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확대될 수 있죠.

### Q7 설립비를 공립유치원 신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 A. 국책사업인 유치원 설립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교육부로부터 우리교육청에 내려주는 법정비용에서 그만큼을 삭감당합니다(교부금법 제8조1항). 국책사업을 발굴한 타시도에 빼앗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설립비 교부액(억원): '15년 - 경기1,795 / 충북 144 / 전북108 / 전남 225 / 세종 311), '16년 - 경기 1,037 / 충남 228 / 전남 193 / 세종235 / 전북 0)

<반대측> 사립측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본 공보물에 수록하지 못했음